



보도 일시	<전매체> 5.11(목) 배포 즉시 * 통신 · 방송 · 인터넷 동일	배포 일시	5.11(목), 오후 2시
-------	---	-------	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	기술협력실	책임자	실 장	지명근 (044-300-0440)
		담당자	책 임	오창석 (044-300-0441)
배포 부서	홍보전략팀	책임자	팀 장	김민철 (044-300-0720)
		담당자	책 임	정민규 (044-300-0721)

TIPA,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한-베트남 기술교류 상담회 성황리 개최

- ASEAN 최대 교역국 베트남을 교두보로 우리 중소기업의 동남아 진출 기반 조성 지원

-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(원장 이재홍, 이하 TIPA)이 한-베트남 기술교류 상담회(4월 25일 ~ 27일)를 개최하여, 팬데믹 기간 간, 해외 진출 지원에 목말라 있던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현지 수요기업 간 기술교류를 지원하는 “2023년 해외기술교류 사업”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.
- 동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융복합기술교류촉진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보유 기술을 기반으로 해외 기술이전, 합작투자, 현지 라이선싱 등 기술무역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지원중인 사업이다.
- 이번 행사는 베트남 현지 수요를 고려하여, 농업(스마트팜, 유기농업 등), 환경(자원 재활용, 순환 등 친환경) 및 헬스케어(소형 의료기기, 디지털 헬스케어 등) 산업을 영위한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였으며,
- 참가기업들은 현지 수요기업, 바이어를 대상으로 보유 기술·제품의 현지 이전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6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.

- 특히, TIPA가 양 국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기술교류·협력을 목적으로 작년 12월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한 “호치민시 과학기술협회연합(HCM-USTA)”과 함께 현지 수요발굴 등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한-베트남 기술협력에 의미를 더했다.
- 이번 기술교류 행사를 계기로 TIPA는 그간 우수 기술력을 개발하고도 이를 활용한 해외 판로 확대와 성과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해 다양한 국가로의 해외 진출 및 기술 수출 성과 확대에 힘을 예정이다.
- TIPA 기술협력실 관계자는 “ASEAN의 주요 교역국인 베트남의 경제중심 도시 호치민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 첫 해외기술교류 상담회를 개최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”며, “앞으로 개최 예정인 태국, 인도네시아, 우즈베키스탄,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의 기술교류 상담회에도 우리 중소벤처기업인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”고 밝혔다.

행사 사진



[사진: TIPA 한-베트남 기술교류 상담회 개최 현장 전경.]